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12월 1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속에서도 온 한해 당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새년도 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각 부분들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언급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 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를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원회의 의정을 토의하였다.

본사기자

## 탁월한 령도, 위대한 승리

지난 12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더한층 북돋아주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속에서도 온 한해 당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 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되었다고,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다.

승리의 해!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자랑찬 승리의 선언을 세찬 격정과 자부심속에 받아안으며 공화국인민들은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사상초유의 엄혹한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쳐며 기세차게 달려온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2020년대 첫째의 진군을 개시한 시기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위대한 투쟁강령과 앞으로 5년간의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와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련이어 소집하시고 각 부문에서 올해 수행해야 할 투쟁과업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

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며 시, 군 강화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랴. 지난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제시하시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었다.

탁월한 령도는 위대한 실천, 거창한 변혁을 안아왔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나라 전체인민이 뜻깊은 올해의 년초부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자립적경제발전의 운명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을 위한 큼직

큼직한 일판을 벌려나갈 때 인민생활의 전초선을 지켜선 경공업부문에서도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사영 품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온 나라가 떨쳐나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도와주는 좋은 결실이 이룩되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모

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을뿐 아니라 지방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져 삼지연시를 비롯한 시, 군들에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훌륭히 일떠서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회한하게 변모되어 세상을 경탄케 하고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을 향하여 계속혁신, 련속공격해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다음에 공화국은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온 나라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이 높다.

뜻깊은 2021년, 승리의 해 마지막달이 흐르고있는 이 시각 공화국의 각지에서 양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만시원이 앞을 가로막아도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련속공격해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